



개관 10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오는 10월 아시아문화박물관 내 ‘중앙아시아실’ 개관을 앞두고,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수장고를 15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장고 내부를 직접 둘러보며, 평소 외부에 노출되지 않던 소장품의 실제 규모와 보존 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누산타라·와양·중앙아시아 등 희소 컬렉션 ‘한자리’
1만9천여 점 소장품, 국제교류 자산으로 활용 기대



개관 10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15일 수장고를 처음 공개했다. 이곳 수장고에는 총 1만4천407건, 1만9천17점의 소장품이 보관돼 있다. 사진은 ACC 수장고 내부 전경. <ACC제공>

총 4곳으로 구성된 수장고는 보존 환경과 수집 유형에 따라 분류됐다. 1·2수장고는 아카이브 중심으로, 3·4수장고는 유기질·무기질 유물을 분리 보관하는 전문 수장고로 운영되고 있었다. 현재 등록된 소장품은 1만4천407건, 1만9천17점에 달한다.

특히 수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일부 유물은 수장고 전실에 임시 보관되는 등 공간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당 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수장고 신축을 추진 중이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ACC의 유물 수집은 2017년 네덜란드에 있는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박물관’ 폐관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ICOM(국제박물관협의회) 주관으로 유물 이관 협의가 이뤄졌고, 대량의 인도네시아 민속자료가 ACC로 기증됐다. 전당은 이 유물 기증을 기반으로 국립박물관 등록을 완료,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현재 ACC가 보유한 대표 소장품은 누산타라 컬렉션, 와양(Wayang) 컬렉션 그리고 중앙아시아 컬렉션이다.

누산타라 컬렉션은 인도네시아 전통 가옥 모

형, 선박, 악기, 공예품 등 총 7천757건(1만2천258점)에 달하는 자료로 구성돼 있다.

와양 컬렉션은 인도네시아 전통 인형극에서 사용되는 인형 세트다. ACC는 무카무카우 컬렉션이라는 명칭으로 6천323건(6천323점)을 보유 중이다. 연극 단위로 구성된 이 인형들은 총 126편 분량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중앙아시아 컬렉션은 최근 몇 년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증 및 구입한 유물들로, 총 322건(377점)을 확보하고 있다.

박재상 연구조사와 학예사는 “이들 유물은 아시아 문화를 교류하고 이해하는 핵심 자원이 된다”며 “동남아 유물이 많은 건 국내 주요 박물관들이 주로 동아시아 중심 수집을 해온 데 반해, 전당은 아시아 전반을 아우르는 기관으로서의 차별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ACC는 기증이나 구입을 통해 서아시아, 남아시아 등 다양한 권역의 생활문화를 담은 유물들을 꾸준히 축적해오고 있다.

김상욱 전당장은 수장고가 유물 보관 공간을 넘어 ACC의 국제 문화 교류 기반임을 거듭 강

조했다.

김 전당장은 “전당이 축적해온 방대한 아시아 유물은 앞으로 각종 문화부와의 협력, 비교 전시, 초청 교류 등 다양한 문화외교의 매개로 활용될 수 있다”며 “작품 수집·보존은 물론, 문화적 연대를 만들어가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한편 ACC는 앞으로도 수집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지역의 유물 확보에 주력하며, 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명진 기자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그라데이션-G’

19일 국립남도국악원 초청공연

‘지역·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으로 감성을 물들인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진도 진악당에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초청공연 ‘그라데이션-G’를 개최한다.

‘그라데이션-G’는 경기도(Gyeonggido)의 정체성과 예술성을 담은 고유의 음악으로 지역과 세대를 넘나들며 그 경계를 물들이는 감동적인 공연을 선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초청단체인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1996

년 창단 이후 경기도의 소리 자원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자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시도해왔다. ‘미래에 남을 오늘의 음악’을 목표로 전통의 재창조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공연에선 타악기를 위한 협주곡 중 3악장 ‘하늘의 울림’을 시작으로 이태백류 아쟁산조 협주곡, 국악관현악 ‘새봄봄’, 민요 ‘노랫가락’, ‘청춘가’, ‘태평가’, ‘뱃노래’, ‘젓은 뱃노래’ 등이 연주된다.

이어 고 박병천 명인의 아들이자 전 부산대 교수였던 박환영의 박종기체 대금산조 협주곡 ‘시공(時空)’과 국악관현악 ‘고래의 꿈’이 무대를 장식한다. /최명진 기자

클래스부터 갈라까지…‘해설이 있는 발레’

시립발레단 초청 18-19일 북구문화센터

광주시립발레단 초청 특별 기획 공연 ‘해설이 있는 발레’ 무대가 오는 18-19일 북구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무용수들의 훈련 과정인 ‘발레 클래스’와 대표 갈라 작품들을 함께 선보인다. 조가영 부예술감독의 해설을 통해 발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의 공연 접근성을 넓히고자 마련됐다.

1막 ‘발레 클래스’에서는 박상철 발레단 지도원이 발레마스터로 참여해 무용수들의 기본 훈련 과정을 무대 위에서 재현한다. 관객은 무대에 오르기 전 무용수들의 실제 연습 장면과 발레마스터의 지도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2막 ‘발레 갈라’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역사적 작품 ‘파리의 불꽃’, 1909년 파리 초연 이래 발레류스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한 ‘세헤라자데’, 영국 낭만

파 시인 바이런의 서사시를 토대로 마리오스 프티파가 안무한 발레 ‘해적 중 그랑 파트 트루와’가 무대에 오른다.

박경숙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은 “발레단의 일상과 무대 뒤편의 훈련 과정을 소개하는 동시에, 주역 무용수들의 뛰어난 기량이 빛나는 작품들로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제26회 광주신세계미술제 공모

21일까지 접수…지역 작가 대상

광주·전남 지역의 유망한 작가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신세계미술제’가 제26회를 맞아 공모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광주신세계미술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신세계미술제는 지난 29년간 지역 미술 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대표적인 민간 작가지원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역시 외부 미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참여해 다각적이고 공정한 심사 체계를 유지하며, 광주와 전남 지역 신진 작가 발굴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대상 상금을 기존보다 500만원 증액해 총 2천만원(상금 및 전시 지원금 포함), 신진작가에게는 총 1천만원의 상금과 창작 지원이 제공된다. 수상자는 오는 9월 초 열리는 ‘제26회 광주신세계미술제 1차 선정작 가전’을 통해 발표된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시내 지역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지방 지사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시내 지역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지방 지사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시내 지역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

CMYK